

격 려 사

불교사회연구소의 다섯 번째 논문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 발간을 축하합니다. 더불어 원력의 실천이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력하시는 불교사회연구소와 전문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의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호국불교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국불교의 사례를 시대별로 정리하였고, 전란 이후 산성 수축과 수비 등 중요 임무를 수행했던 승군과 승역 활동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 조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불교와 국가’를 주제로 각 시대별·국가별 불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1·2·3·4권,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1·2·3·4권, 『해남 대흥사 표충사表忠祠』, 『밀양 표충사 표충사表忠祠』, 『갑사 표충원表忠院』은 불교사회연구소가 2011년부터 축적해온 소중한 성과물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에는 ‘조선시대의 불교와 국가’관련 논문, 그리고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도출된 전망과 과제 등을 토대로 불교사회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3.1운동 및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항일운동 관련 연구와 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나라와 민족에 시련이 닥칠 때마다 불교는 생명존중과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전란 뿐 아니라 전란을 겪은 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호국의승’과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호국불교’의 전통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의 ‘호국불교’ 연구를 통해 모든 국민이 ‘호국의승’의 활동과 역사적 공훈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선대(先代)의 구국제민(救國濟民)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국불교 연구사업에 매진하시는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과 전문 연구자분들께 거듭하여 격려와 치하의 마음을 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호국불교’와 관련한 의미있는 결실들이 속속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우리 사회의 앞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